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중년기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박 정 묘[†]

심 혜 숙

부산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효능감과 페르소나, 영성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심리기능에 따른 중년기 생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서울과 부산지역의 40, 50대 성인 남녀 242명(남 88명, 여 15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는 사랑체험, 자기초월, 관계체험, 헌신 요인에서 심리기능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ST기능과 NF기능 간의 차이로 두드러졌다. 둘째, ST, SF, NF 심리기능의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영성이며,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순이었다. 그리고 NT 기능의 경우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며 다음으로 영성, 페르소나 순이었다. 또한 이 변인들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ST기능에서 총변량의 87%, SF기능 85%, NF기능 84%, 그리고 NT기능에서 80%를 설명하였다. 셋째, 유희적 어린이페르소나, 완벽 페르소나, 배려 페르소나는 생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판 페르소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심리기능, 생의 의미, 개성화,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

* 본 연구는 박정묘(2007)의 박사학위논문 ‘심리경향에 따른 중년기 생의 의미 분석’의 일부임.

† 교신저자 : 박정묘,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 051-510-1615, E-mail : 02myau@hanmail.net

생의 발달에 있어 중년기는 한 사회를 이끌어어나가는 중심 세대로서 개개인이 갖는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중요시된다. 또한 이 시기는 개인적으로 내적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과거의 이상과 현실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통합하는 시기이다(Gould, 1978; Levinson, 1978). 그리고 중년기는 심리·사회적인 생성성(generativity)의 발달과업에 직면하는 시기(Erickson, 1963)로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따라서 중년기는 삶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비롯해 인생목표, 역할 행동,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Susan & Loren, 1999). 즉 중년기는 생의 전환기에 제기되는 생의 의미(Fabry, 1974/1985)가 다시 제기되는 시기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각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이다(Corlett & Millner, 1993). 또한 Jung(1969)은 젊은이들의 주요과제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자아(ego)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중년기 성인들의 주요과제는 진정한 자기(Self)가 되어 내부세계를 형성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전체성의 회복을 뜻하는 개성화(individuation)라고 하였다(이부영,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창조력을 발견하여 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한 개인이 고유한 인격을 완성해가는 개성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Jung(1971)에게 있어서 개성화 과정이란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대극을 이루는 심리태도와 심리기능의 합일을 통하여 원만한 성격을 이루어가는 과정(becoming process)이다. 감각과 직관의 인식기능과 사고와

감정의 판단기능으로 이뤄진 네 가지 심리기능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Myers & Myers, 1980; Myers & McCaulley, 1962/1995). Myers와 Kirby(1994)는 인생의 전반기에 심리기능 중 주기능과 부기능의 상호보완적 태도를 적절히 발달시키지 못할 때 심리기능의 발달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즉 주기능이 지나치게 발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등기능은 미분화하여 열등기능의 긍정적인 특성 대신에 원시적이고 고태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은 비효과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이부영, 1978; Jung, 1954; von Franz, 1971). 특히 중년기 이후에는 주기능과 그 대극의 열등기능에 대한 이해와 분화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야만 진정한 자기에 도달할 수 있다(이부영, 1998). 이것이 성숙한 성격의 지표이며 개성화를 통한 원만성이다(김정택, 1995).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기능에 따라 애착유형(권창현, 심희선, 2003), 자기주도학습능력(신영애, 심혜숙, 2006), 리더십 생활기술(손경옥, 심혜숙, 2006), 자기효능감과 생의 의미(박정묘, 2006)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독특한 심리기능이 대인관계 양식 및 적응양식뿐만 아니라 생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인 특성과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년기 생의 의미는 심리기능의 주기능과 열등기능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한 개성화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Frankl(1969/1980)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은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며, 생의 의미가 없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내적 긴장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은 삶에 열정과 희열을 가져다주어 생명을 영속시키는 근본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결국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정지, 1995). 또한 생의 의미는 현재 처해진 환경에 대처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잠재성으로서(Frankl, 1975), 가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Längel, 2005).

생의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의 기본 요소이며(Ryff & Keyes, 1995; Zika & Chamberlain, 1992)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전현옥, 2003; Zika & Chamberlain, 1992). 생의 의미 수준은 중년 여성의 경우 위기감(홍미혜, 1999)을, 중년남성의 경우 정신건강 상태(박근희, 2004)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변수이며, 자기정체감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김은아, 1992). 따라서 생의 의미 수준이 높으면 생활의 제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위기감 역시 자기정체성과 목표수준을 재설정하고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긍정적인 선행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의 의미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16성격요인과 인생목적검사(Purpose In Life Test: PIL)의 관계(Crumbaugh, Raphael & Shrader, 1970), Eysenk 성격검사와 인생목적검사의 관계(Pearson & Sheffield, 1974), 그리고 성격의 4요인(TIPI)과 생의 의미(SoMe) 관계(Schnel & Becker, 2006)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특성론적 관점에서 성격과 생의 의미에 대한 관계를 밝혀 연구 자체로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전환기를 맞은 중년기 개인에게 있어서 생의 의미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변화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의 역동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Jung의 심리기능 이론에는 무의식에 대한 가설이 포함돼 심리기

능 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표출 사이의 불가피한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대극의 합일이란 역동성을 내포한다(박종삼, 1999). 대극이란 어떤 상태의 극단적인 성질로서 잠재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각될 수 있다(Jung, 2002). 즉, 의식세계에서 결여된 심리기능을 무의식세계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다(박종삼, 1999). 그리고 심리기능은 개인의 적응/부적응의 심리발달을 설명하는 틀과 자신과 타인의 심리에 대한 내적인 역동성과 행동양식을 통찰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한다(신영규, 2000). Jung은 의미는 삶보다 더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고 했으며,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이것은 원초적 상태에 기인한다고 보았다(Jung, 2002). 원초적 상태의 하나로서 선천적 경향성인 심리기능은 정신과정의 에너지 균형을 통하여 생의 의미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에 대한 탐색은 중년기 개인의 지금-여기에서의 독특성과 역동성의 관점을 설명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년기 발달과업으로서 생의 의미는 내, 외적인 삶의 통합성을 포괄함으로써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삶의 통합성과 관련하여,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이 적응과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Stein(1987), Corlett와 Millner(1993)는 중년기의 발달과업을 페르소나의 재통합과 영성의 추구로 보았다. 페르소나의 재통합은 중년기 개인의 삶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내·외적 인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중요시된다(이부영, 1998). 또 영성의 추구는 인간의 존재(being)와 행동(doing)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박종삼, 2000). 이와 같이 통합성의 차원에서 자기효능감과 페

르소나, 영성은 중년기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선택적 기술들이 잘 배합되어 있는 생성적 능력이다(Bandura, 1997/1999). 한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삶은 효능감에 따른 신념으로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97/2001). Baltes와 Baltes(1990)는 중·노년기의 효능감과 긍정적인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의 최적화 전략(Bandura, 1989)은 인생 전체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aumeister(1991)도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요소를 목적, 자기존중감, 가치, 효능감이라고 하였다. Scott(2002)는 5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도록 자극하며 생의 의미를 통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김태주, 1998)과 심리적 안녕감(구재선, 2005)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박정묘(2006)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아지며, 심리기능과 자기효능감 및 생의 의미는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 관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주관적인 생의 의미나 삶의 목표설정에서 자기 고유성에 대한 신념을 더해 줄 것이다.

둘째, 페르소나는 자아가 외부세계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동양식이며 사회적 역할로서, 하나의 인격체처럼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의식 속에 있는 내적 인격에 대비하여 외적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이부영, 1998; Jung, 1954). von Franz(1971)는

개인이 자신의 열등기능과 무의식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발달되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라고 보고 있다. 성격의 개성화 과정에서 열등기능의 소화, 흡수를 통한 무의식에 대한 인식이 지체될수록 페르소나의 극단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김정택, 1995). 즉 페르소나가 일방향적으로 과도하게 발달되면 그 반대 방향의 거부된 자아는 무의식에 억압당하게 된다. 이로 인한 미해결 과제는 중년기 이후 신체적, 심리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김정규, 2002; 이부영, 1998; Stone & Stone, 1989). 그러나 페르소나는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적 인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야 하는 대상이다(이부영, 1998). 아울러 중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페르소나의 재통합은 전통, 규칙, 역할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되는 것이다(Corlett & Millner, 1993; Jung, 1954; Stein, 1987). 이 자기는 창조적이고 진실되며 현명하다(Assagioli, 1965). 나아가 건강한 페르소나는 성격 및 인격의 실재에도 적합한 것이다(Welch, 1982). 심리경향과 페르소나는 독특한 방식으로 연관되며(심혜숙, 박순환, 2004), 특정한 페르소나의 발달은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높다(박순환, 2005). 이러한 연구결과와 중년기 과업 중의 하나를 인격의 통합이라고 본 Jung(1971)의 견해에 의하면 개인의 심리기능에 따라 페르소나 및 생의 의미 요인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년기 개인은 페르소나를 적절히 재통합함으로써 편안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내·외적 일치성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Corlett & Millner, 1993)

마지막으로 영성이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 가치, 생활양식을 통하여 절대자(the

Infinite)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Walsh, 1999). Frankl(1968)은 인간을 영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자아초월을 생의 의미의 궁극적인 차원이라고 보았고, Jung(1933)은 생의 의미의 궁극적인 근원은 각 개인이 영성과 깊은 접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아가 Jung(1954)은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의 네 가지 심리기능의 구조를 전체성을 향한 발달통로로서, 영성적 여정의 부분으로서, 생애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Corlett & Millner, 1993에서 재인용). 그리고 박종삼(2000)은 심리기능이 전인적 영성(Holistic Spirituality)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통합과정에서 균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또 중년기의 성인들은 심리기능에 따라 영성을 다르게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Richardson, 1996). 즉 ST 심리기능을 일의 영성, SF는 현신의 영성, NF는 조화의 영성 그리고 NT는 통일의 영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적인 성장은 인생의 여러 주기에서 일어나며, 사원이나 종교 공동체를 포함하여 개인이 생활하고 일하는 삶의 정황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중년기에는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세계를 향해 큰 잠재력을 갖게 되며, 내면의 마음이 온화하고 인정이 많은 상태로 되는 시기이다(Richardson, 1996/2001). 영성은 성인기 정서적인 안녕감(Hodges, 2002), 건강상태, 삶의 질, 희망과는 정적인 상관관계(성미순 1999; 오복자, 1997; 정정숙, 2005)를 보이는 반면,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송미옥, 2002; 양복순, 1999). 또 실존적 영성은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따라서 인생행로에서 영성은 생의 의미와 목적 등을 제시해주는 핵심적이고 실존적인 요소이다(박종삼, 2000; Beebe, 1995). 아울러 중년기

개인은 삶과 영성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생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존재로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삶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고 재통합을 통하여 생의 의미를 재설정하는 일이다. 중년기 성격발달을 통한 개성화 과정과 생의 의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의 향상, 페르소나의 재통합, 영성의 추구는 발달과업으로서 중요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Jung의 중년기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40, 50대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페르소나 및 영성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년기 발달과업인 개성화와 통합성, 생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돕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발달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심리기능에 따라 생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40, 5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의 200명과 부산지역의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6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네 가지 심리기능별 빈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 심리기능의 표본의 수를 비슷하게 조정하여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242명의 성별분포는 남자 88명(31.6%), 여자 154명(68.4%)이었다. 연령분포는 중년기 전환기에 해당하는 40-45세가 108명(44.6%), 46-50세가 66명(27.2%), 51-59세가 68명(28.1%)으로서 40대가 50대보다 훨씬 많았다(71.9%: 29.1%). 종교분포는 기독교 84명(34.7%)으로 가장 많으며, 종교를 가진 비율이 71.1%(172명)로서 높은 편이다. 학력분포는 전문대 졸업 이하가 26명(10.7%), 대학교 졸업이상이 216명(89.2%)이었다. 직업분포는 다양하나 공무원 67명(28.0%), 전문직 72명(29.8%), 농업 및 어업 1명(0.2%)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결혼이 228명(94.2%)이며, 자녀의 수는 2명이 152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 도구

성격유형검사(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Myers와 Briggs가 제작하고, 김정택과 심혜숙(1990)에 의하여 표준화된 한국판 MBTI Form G를 사용하였다. 반분법 내적 신뢰도는 EI 지표 .77, SN 지표 .81, TF 지표 .78, JP 지표 .82이고, 재검사 신뢰도는 EI 지표 .86, SN 지표 .85, TF 지표 .81, JP 지표 .88이다.

생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Scale: MIL)

신경일 등(2005)이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564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유한성 인식 .83, 소망 .82, 목표추구 .82, 사랑 체험 .76, 자기초월 .83, 관계체험 .81, 자기만족 .71, 헌신 .74이며, Cronbach α 계수는 .94였

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자기 유한성 인식 .75, 소망 .83, 목표추구 .85, 사랑체험 .78, 자기초월 .82, 관계체험 .83, 자기만족 .70, 헌신 .84이며, 생의 의미 총합은 .94였다.

자기효능감 검사(Self-efficacy Scale)

구재선(2005)이 개발한 자기주장적 효능감과 관계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342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박정모, 2006)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자기주장적 효능감 .84, 관계효능감 .86, 성취효능감 .82, 자기효능감 총합 .89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자기주장적 효능감 .87, 관계효능감 .85, 성취효능감 .86, 자기효능감 총합 .91이었다.

다면 페르소나 검사(Multiphasic Persona Inventory)

박순환(2005)이 개발하고 박순환과 심혜숙(2006)이 69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페르소나 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보호·통제 .79, 체면지향 .79, 민감한 어린이 .83, 배려지향 .77, 유희적 어린이 .83, 강함추구 .78, 완벽지향 .83, 성취지향 .85, 비판적인 페르소나 .69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체면 .83, 배려 .90, 유희적 어린이 .86, 완벽 .92, 비판 페르소나 .87이며 페르소나 총합 .91이었다.

실존적 영성 척도(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Scale)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를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2004)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유성경 등(2004)의 연구에서 실존적 영성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실존적 영성 척도만을 사용하였는데, 이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4였다.

결 과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개별 사후검증으로 Tukey HSD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네 가지 심리기능별 빈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ST, SF기능의 4가지 심리경향 중에서 각각 무선 재표집하여 네 가지 심리기능의 표본의 수를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심리기능 및 심리경향별 표본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2에 의하면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

표 1 심리기능 및 심리경향별 표본의 분포 (N=242)

심리기능	ST	SF	NF	NT
	ISTJ 17	ISFJ 17	INFJ 11	INTJ 21
심리경향 및 표본	ISTP 17	ISFP 17	INFP 23	INTP 12
	ESTP 17	ESFP 17	ENFP 15	ENTP 9
	ESTJ 17	ESFJ 17	ENFJ 6	ENTJ 9
전체	68	68	55	51

표 2.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

	다변량			일변량	
	Wilks' λ	자유도	F	F	Tukey HSD
유한성				2.24	
소망				1.17	
목표추구				0.40	
사랑체험	0.83	24, 671	1.86**	3.11*	NF>ST
자기초월				2.90*	NF>ST
관계체험				6.42***	NF>NT, SF, ST
자기만족				2.52	
헌신				3.39*	NF, NT>ST

* $p < .05$, ** $p < .01$, *** $p < .001$

에서 *Wilks' λ* 값은 .83($F=1.86, p<.01$)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NF기능이 ST기능에 비하여 생의 의미의 사랑체험($F=3.11, p<.05$), 자기초월($F=2.90, p<.05$) 요인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NF기능이 NT, SF, ST기능에 비하여 관계체험 요인이 유의미하게 높고($F=6.42, p<.001$), NF, NT기능이 ST기능에 비하여 헌신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 p<.05$). 이러한 결과는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에서 NF기능과 ST기능의 차이로 요약된다. 즉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각 심리기능에서 자기 효능감, 페르소나 및 영성이 생의 의미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ST기능의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표 3에 의하면 ST기능의 생의 의미는 자기 효능감, 페르소나, 영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영성($r=.79, p<.001$), 자기효능감($r=.77, p<.001$), 유희적 어린이($r=.64, p<$

표 3. ST기능의 생의 의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생의 의미	-	.77***	.19	.39***	.64***	.43***	-.51***	.79***
2. 자기효능감		-	.04	.28*	.59***	.35**	-.45***	.50***
3. 체면페르소나			-	.53***	.03	.49***	.20	.19
4. 배려페르소나				-	.28*	.58***	.17	.26*
5. 유희적어린이페					-	.31**	-.05	.39**
6. 완벽페르소나						-	.06	.32**
7. 비판페르소나							-	-.49***
8. 영성								-

* $p<.05$, ** $p<.01$, *** $p<.001$

표 4. ST기능의 생의 의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i>b</i>	<i>SE</i>	β	<i>t</i>	R^2	R^2 Change	<i>F</i> Change
영성	.36	.05	.41	6.68***	.62	.62	108.95***
자기효능감	.28	.07	.26	3.75***	.81	.19	63.08***
유희적어린이페	.23	.05	.27	4.34***	.84	.03	11.28**
비판페르소나	-.24	.07	-.22	-3.36**	.85	.01	4.15*
배려페르소나	.15	.05	.18	3.31**	.87	.02	10.98**

.001), 완벽 페르소나($r=.43, p<.001$)는 생의 의미와 매우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비판 페르소나는 생의 의미와 매우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51, p<.001$).

표 4에 의하면 ST기능의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영성으로 총변량의 62%를 설명하며, 자기 효능감이 19%,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가 3%, 비판 페르소나가 1%, 배려 페르소나가 2%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여 이 변인들이 총변량의 87%를 설명하였다. 한편 예언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비교할 때 생의 의미를 영성($\beta=.41$), 자기효능감($\beta=.26$),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beta=.27$), 비판($\beta=-.22$), 배려 페르소나($\beta=.18$) 순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 페르소나는 그

설명방향이 역방향이다. 이는 표 3에서 보듯이 비판 페르소나가 생의 의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SF기능의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표 5에 의하면 SF기능의 생의 의미는 자기 효능감, 페르소나, 영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영성($r=.83, p<.001$), 자기효능감($r=.68, p<.001$), 완벽 페르소나($r=.57, p<.001$), 배려 페르소나($r=.48, p<.001$)는 생의 의미와 매우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비판 페르소나는 생의 의미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40, p<.001$).

표 6에 의하면 SF기능의 생의 의미를 가장

표 5. SF기능의 생의 의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생의 의미	-	.68***	.09	.48***	.42***	.57***	-.40***	.83***
2. 자기효능감		-	.14	.38**	.50***	.54***	-.28*	.44***
3. 체면페르소나			-	.41***	.15	.53***	.34**	-.03
4. 배려페르소나				-	.22*	.42***	.16	.33**
5. 유희적어린이페					-	.28*	-.14	.23*
6. 완벽페르소나						-	-.09	.32**
7. 비판페르소나							-	-.36**
8. 영성								-

* $p<.05$, ** $p<.01$, *** $p<.001$

표 6. SF기능의 생의 의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i>b</i>	<i>SE</i>	β	<i>t</i>	R^2	R^2 Change	<i>F</i> Change
영성	.55	.05	.64	11.72***	.70	.70	150.57***
자기효능감	.27	.06	.29	4.60***	.82	.12	43.27***
완벽	.14	.04	.21	3.56**	.85	.03	12.65**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영성으로 총변량의 70%를 설명하며, 자기 효능감이 12%, 완벽 페르소나가 3%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여 이 변인들이 총변량의 85%를 설명하였다.

NF기능의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표 7에 의하면 NF기능의 생의 의미는 자기 효능감, 페르소나, 영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영성($r=.82, p<.001$), 자기효능감($r=.74, p<.001$), 유희적 어린이($r=.57, p<.001$), 완벽 페르소나($r=.37, p<.001$), 배려 페르소나($r=.36, p<.001$)는 생의 의미와 매우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비판 페르소나는 생의 의미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38, p<.001$).

$p<.001$).

표 8에 의하면 NF기능의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영성으로 총변량의 67%를 설명하며, 자기 효능감이 14%, 배려 페르소나가 3%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여 이 변인들이 총변량의 83%를 설명하였다.

NT기능의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표 9에 의하면 NT기능의 생의 의미는 자기 효능감, 페르소나, 영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자기효능감($r=.76, p<.001$), 영성($r=.64, p<.001$), 완벽($r=.49, p<.001$), 유희적 어린이($r=.49, p<.001$), 체면 페르소나($r=.38, p<.001$)는 생의 의미와 매우 유의미한 정적상

표 7. NF기능의 생의 의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생의 의미	-	.74***	.15	.36**	.57***	.37**	-.38**	.82***
2. 자기효능감		-	.08	.19	.45***	.41**	-.44***	.52***
3. 체면페르소나			-	.43**	.11	.61***	.13	.04
4. 배려페르소나				-	.25*	.40**	.33**	.19
5. 유희적어린이페					-	.22	-.09	.45***
6. 완벽페르소나						-	-.19	.29*
7. 비판페르소나							-	-.43**
8. 영성								-

* $p<.05$, ** $p<.01$, *** $p<.001$

표 8. NF기능의 생의 의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i>b</i>	<i>SE</i>	β	<i>t</i>	R^2	R^2 Change	<i>F</i> Change
영성	.54	.06	.57	8.63***	.67	.67	108.78***
자기효능감	.35	.06	.41	6.19***	.81	.14	37.17***
배려페르소나	.11	.04	.17	2.97**	.84	.03	8.79**

표 9. NT기능의 생의 의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생의 의미	-	.76***	.38**	.23	.49***	.49***	-.47***	.64***
2. 자기효능감		-	.50***	.27*	.48***	.58***	-.34**	.32*
3. 체면페르소나			-	.34**	.35**	.62***	.02	-.19
4. 배려페르소나				-	.20	.54***	.21	.08
5. 유희적어린이페					-	.24*	-.02	.26*
6. 완벽페르소나						-	.07	.22
7. 비판페르소나							-	-.41**
8. 영성								-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NT기능의 생의 의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i>b</i>	<i>SE</i>	β	<i>t</i>	R^2	R^2 Change	<i>F</i> Change
자기효능감	.41	.08	.45	5.20***	.58	.58	66.60***
영성	.49	.07	.55	7.13***	.75	.18	34.45***
체면페르소나	.12	.04	.27	3.16**	.80	.04	9.98**

관을 보였다. 반면 비판 페르소나는 생의 의미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41, p < .001$).

표 10에 의하면 NT기능의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 효능감으로 총변량의 58%를 설명하며, 영성이 18%, 체면 페르소나가 4%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여 이 변인들이 총변량의 80%를 설명하였다.

논 의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에서 NF

기능이 ST기능에 비하여 생의 의미의 사랑체험, 자기초월 요인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것은 인간관계 및 자기실현 과정에서 영적인 목적을 찾으려는 이상주의적인 NF기능과 일 중심의 현실주의적인 ST기능의 경향성(심혜숙, 김정택, 1998; Myers & McCaulley, 1962/1995)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NF기능과 ST기능은 서로 대극을 이루는 심리기능으로서, 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심리기능의 주기능과 열등기능 간의 대비로 나타난다. 이는 주기능과 열등기능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하여 통합된 인격체에 이를 수 있다는 Jung (1971)과 von Franz(1971), 이부영(1998), 김정택 (1995) 등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헌신 요인에서 사회적인 화합과 세

계평화에 대한 이상을 지닌 NF기능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NT기능이, 봉사하는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봉사하는 ST기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심리기능들 간의 경향성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NF와 NT기능의 경향성을 반영하듯 중년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발전을 향한 헌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NF기능이 생의 의미의 사랑체험, 자기초월, 관계체험, 헌신 요인 등에서 ST, SF, NT기능과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 주목된다. 이는 내면의 발달을 민감하게 지향하고 삶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NF기능의 경향성(Myers & MaCaulley, 1962/1995)이 중년기에 지향하는 삶의 통합성과 관련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에서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박정모, 2006)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년기에는 개인마다 자기 과업이나 삶의 목적 또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개성화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중년기는 심리기능의 주기능과 그 대극의 열등기능에 대한 이해와 분화를 통해 자기 내면의 발달을 지향하는 재통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ST, SP, NF기능의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영성이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순이었다. ST기능은 생의 의미의 유한성 인식과 목표추구, 자기만족요

인과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박정모, 2006). 이러한 결과는 일의 여행으로 일컬어지는 ST기능의 영성이 실재를 통하여 옳은 일을 하고 법과 언약, 질서와 정의를 지키며 인쇄심으로 고유한 가치를 실천함으로써(Richardson, 1996/2001), 영적 성장과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ST기능은 현실주의자로서 논리적 추리과정을 선호하며 신중함과 공정함을 통하여 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Myers & MaCaulley, 1962/1995). 이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일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자기 긍정의 유능감 및 효능감으로 내면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T기능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충분한 ESTP, ESTJ 유형의 경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판 페르소나의 부적인 영향은 경험과 상식, 인과론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질차와 형식에 맞추어 행동하는 ST기능의 경향성(심혜숙, 김정택, 1998)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기준 또는 과도한 역할로 기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SF기능은 생의 의미의 헌신, 목표추구, 소망, 사랑체험, 자기초월, 관계체험요인과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박정모, 2006).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헌신의 영성으로 일컬어지는 SF기능의 영성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두고 단순한 목표 설정이나 성취를 중요시하며 봉사를 통한 선한 삶을 추구함으로써(Richardson, 1996), 영적 성장에 이르고 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효능감 차원에서 SF기능은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데 헌신하고 대인관계 및 사람에 대한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므로(Myers & MaCaulley, 1962/1995),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신뢰와 일체감이 내면화되어 효능감이 증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F기능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완벽페르소나는 민감하고 성실하여 연속성과 예의를 강조하는 문화나 전통적 가치를 따르려는 경향성(Richardson, 1996/2001)을 현신하는 삶 속에서 강화하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NF기능은 생의 의미의 유한성 인식, 소망, 사랑체험, 자기초월, 관계체험, 자기 만족, 헌신요인과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박정묘, 2006). 이러한 결과는 생의 의미의 태도적 가치인 자기초월 및 자기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조화의 여행으로 일컬어지는 NF기능의 영성은 진정한 자기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Richardson, 1996/2001). 한편 NF기능의 자기효능감은 미래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이며 상징과 은유의 직관적인 경향으로 큰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경향성(심혜숙, 김정택, 1998)과 자기탐구과정에 대한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NF기능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배려 페르소나는 온정과 영감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도와주며, 사회적인 화합과 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시키려는 긍정적인 성향(Myers & MaCaulley, 1962/1995; Richardson, 1996)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NT기능의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며, 다음으로 영성, 페르소나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NT기능은 생의 의미의 유한성 인식, 목표추구, 자기 만족, 헌신요인과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심리기능 집단에 비하여 자기 주장적효능감과 성취효능감이 높

다는 박정묘(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NT기능은 변화의 주창자들이며 전략적 기획가로서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종합체계를 좋아한다. 또한 포괄적인 통찰력으로 기술적, 과학적, 이론적인 관리직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Myers & MaCaulley, 1962/1995) 독창적이고 우월한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을 근거로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일의 여행으로 일컬어지는 NT기능의 영성은 사색적이고 이성적이며 회의적이고 단순하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는 경우가 많다(Richardson, 1996/2001). 특히 중년기에는 이러한 경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이고 영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생의 전반기에 소홀했던 인간관계 및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NT기능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체면 페르소나는 완벽함과 높은 기준을 추구함에 있어 다소 강박적인 경향성(Richardson, 1996)의 자기 주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의 결과에 의하면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성이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순이었다. 또한 이들 변인이 ST기능에서 생의 의미의 총변량의 87%, SF기능 85%, NF기능 84%, NT기능에서 80%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기능에 따른 영성과 자기효능감 및 페르소나가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명변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기능에 따른 영성은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ST기능에서 총변량의 62%, SF기능에서 70%, NF기능에서 67%를 설명하였다. 이는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의 네 가지 심리기능의 구조를 전체성을

향한 발달통로로, 영성적 여정의 부분으로 인식한 Jung(1954)의 견해를 지지하는 일면이다. 영성이 생의 의미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양상은, 중년기의 삶에서 통합 과정을 인식하도록 돕는 만다라의 상징적 의미(Corlett & Millner, 1993)에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성들에 대한 네 가지 심리기능으로서 일의 여행(ST)에서는 언약과 청지기직, 헌신의 여행(SF)에서는 헌신과 봉사, 조화의 여행(NF)에서는 조화와 탐구, 통일의 여행(NT)에서는 명확성과 정의가 각각 영적인 수가(valence)와 윤리적인 수가로 평가되듯이(Richardson, 1996), 심리기능별로 영성을 추구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의 개인은 영적인 성장과 함께 고유한 자기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는 삶의 양식이 중요시된다.

자기효능감 또한 생의 의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생의 의미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다(구재선, 2005; 김태주, 1998; 박정묘, 2006; Stajkovic & Luthans, 1998).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개인적인 생의 의미를 통합하며, 생의 의미는 자기효능감과 분리될 수 없다는 Scott(2002)의 주장을 지지한다. 즉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삶이 질적으로 혁신되고 창조적으로 거듭남을 시사한다(Bandura, 1997/2001).

페르소나가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희적 어린이, 완벽, 배려 페르소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판 페르소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페르소나는 구별해야 하는 대상이며(이부영, 1998), 건강한 페르소나는 성격 및 인격의 실재에도 적합한 것(Welch, 1982)임을 실증하는 일면이다. 특히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는 무의식 차원의 거

부된 페르소나로서(Stone, 1989), 이 페르소나와의 접촉은 중년기의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개성화 과정과 생의 의미 증진에 중요시된다. 아울러 중년기 개인은 페르소나의 재통합을 통하여 삶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고 자기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를 실증한 점이다. 서로 대극을 이루되 상호보완적인 NF와 ST심리기능 간의 차이는 개인 내의 주기능과 열등기능의 대극을 나타낸다. 이는 중년기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심리기능의 주기능과 열등기능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심리기능과 생의 발달 주기 등이 내담자가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성격과 생의 의미의 관계가 독특한 양식으로 관련되는 양상은 특성론적 차원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기능에 따른 생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개인의 심리기능의 강점과 함께 개발 가능한 점을 열등기능을 통해서 인식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심리기능의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심리기능에 따른 영성과 자기효능감, 페르소나가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명변인임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성장발달 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 개인 또는 내담자는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과업을 실현하고 생의 의미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성의 성장, 자기효능감의 증진, 페르소나의 통

합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아울러 영성과 자기효능감, 페르소나는 중년기 생의 의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장 발달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으로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페르소나는 지향하거나 통제할 것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임을 실증한 점이다. 중년기 통합과정에서 페르소나 수준이 적절할 경우 유희적 어린이, 완벽, 배려페르소나는 지향해야 할 요소인 반면 비판 페르소나는 통제해야 할 페르소나임을 시사한다. 이는 중년기 개인이 자기 안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와 접촉하기 등 페르소나의 재통합을 통하여 집단적 의식에 동일시하지 않고 주관적 의식의 자기 존재와 생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부산의 40, 50대 성인 남녀로, 학력수준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전문직과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집단으로 생의 의미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 내적 변인들이 중년기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지만, 중년기 생의 의미를 좀 더 타당성 있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을 포함한 심리 내, 외적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심리기능의 분화나 생의 의미 증진에 따른 개인의 발달적 변화나 추이를 밝히는 데 무리가 있다. 이러한 변화나 추이를 좀 더 타당성 있게 규명하기 위하여 종단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창현, 심희선 (2003). 청소년의 심리유형과 애착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0, 71-96.
- 김은아 (1992).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 (2002). 게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정택 (1995). 융(Jung)의 열등기능론의 상담과 심리치료에서의 활용. 한국심리유형학회지, 2(1), 1-30.
- 김태주 (1998). 중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논문집, 12, 109-124.
- 박근희 (2004). 한국 중년남성의 삶의의미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환 (2005). 다면 페르소나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순환, 심혜숙 (2006). 수정판 다면 페르소나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8, 231-257.
- 박정묘 (2006). 심리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생의 의미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3, 1-24.
- 박종삼 (1998).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MBTI 활용. 한국심리유형학회 제 7차 학술발표회 workshop 자료집, pp.29-48.
- 박종삼 (2000). 영성훈련을 위한 도로망 지도. 한국심리유형학회 제 9차 학술발표회 workshop 자료집, pp.19-36.

- 손경옥, 심혜숙 (2006). 청소년의 심리유형과 리더십생활기술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3, 65-84.
- 송미옥 (2002). 영적간호중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안녕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 김숙남, 이정지 최순옥 (2005). 생의 의미 측정도구의 개발 II. *대한간호학회지* 별책, 35(5).
- 신영규 (2000). 상담에서의 심리유형론적 접근. *한국심리유형학회 제 9차 학술발표회 workshop 자료*, pp.75-78.
- 신영애, 심혜숙 (2006). 성격유형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3, 25-44.
- 심혜숙, 김정택 (1998). MBTI 성장프로그램 지도자 안내서 (I).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심혜숙, 박순환 (2004). 심리유형과 페르조나의 발달과의 관계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1, 1-17.
- 양복순 (1999). 중년 여성의 영적안녕, 자아개념, 우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학연구*, 18(1), 393-408.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Jung의 인간심성론 개정증보판. 서울: 일조각.
- 이정지 (1995). 의미간호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목적과 의미발견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정숙 (2005). 영적 간호중재가 말기 암환자의 영적 안녕, 우울, 불안 및 통증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미혜 (199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수준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ssagioli, R. (1965). *Psychosynthesis: A manual of technique*. New York: Hobbs, Dorman.
- Baltes, P. B., & Baltes, M. M. (Eds.).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1997에 출판)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rlett, E. S., & Millner N. B. (1993). *Navigating midlife- Using typology as a guide*. California: Davies-Black Publishing Palo Alto.
- Crumbach, J. C., Raphael, M., & Shrader R. R. (1970). Frankl's will to meaning in life in a religious 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206-207.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abry, J. B. (1980). *The pursuit of meaning* (Rev. ed.). New York: Harper & Row.
- Frankl, V. E. (1969).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 of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The*

-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ol. 6.*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2002).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 저작집 2권 [*Archtyp und Unbewußtes: Grundwerk C. G. Jung*]. (한국융연구원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서울: 숲.
- Längel, A. (2005, January).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the existential fundamental motivations. *Existential Analysis*, 16(1), 2-14.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Myers, I. B., & Kirby, L. K. (1994). *Introduction to type: Dynamics and development*.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Myers, I. B., & McCaulley, M. H. (1995). MBTI 개발과 활용 [*Theory, psychometrics application*].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편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원전은 1962에 출판)
- Paloutzian, P.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New York: John Wiley & Sons.
- Pearson, P. R., & Sheffield, B. F. (1974). Purpose in life and Eysenk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562-564.
- Richardson, P. T. (2001). 성격유형과 네 가지 영성 [*Personal type and four spiritualities*]. (박종삼, 유형재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원전은 1996에 출판)
- Schnell, T., & Becker, P. (2006). Personality and meaning in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1(1), 117-129.
- Scott, G. W. (2002). *High self-efficacy and perseverance in adult committed to new challenging life pursuit after age 50: A grounded theory study*.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daho.
- Susan, K. W., & Loren, A. C. (1999). *Life in the midlife*. California: Academic Press.
- Stein, M. (1987). *In midlife: A Jungian perspective*. Dallas: Spring Publication.
- Stone, H., & Stone, S. (1989). *Embracing our selves*. Navato, CA: New World Library.
- von Franz, M. L. (1971). *C. G. Jung: His myth in our time*. New York: Putnam.
- Walsh, F. (1999).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F. Walsh (Ed.), *Spiritual resources in family therapy* (pp.3-27).
- Welch, J. (1982). *Spiritual pilgrims: Carl Jung and Teresa of Avila*. New York: Paulist Press.
- Zika, S., & Cham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33-145.

원고접수일 : 2008. 9.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 8
게재결정일 : 2009. 2. 9

Effects of Self-efficacy, Persona and Spirituality on Meaning in Life at Mid-life according to Psychological Function

Jung-Myau Park

Hae-Sook Sim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in life at mid-life according to psychological function in a demonstrative way using self-efficacy, persona and spirituality to predict the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in life according to psychological function marked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the most illustrative variance which explains meaning in life among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T, SF and NF, was orderly spirituality, self-efficacy, and persona. For the NT psychological function, the most illustrative variances was self-efficacy, spirituality and persona. Third, for the effect of persona on meaning in life, the playful child, perfectionist, and pleaser persona had a positive effect, while the critic persona had a negative one.

Key words : psychological function, individuation, meaning in life, self-efficacy, persona, spirituality